

#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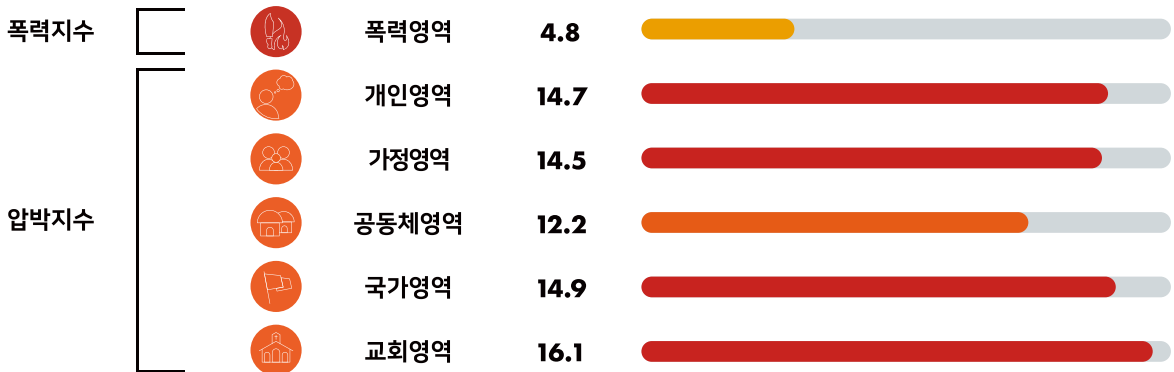
20위

### 알제리 (ALGERIA)



©Unsplash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지난 3년 동안 알제리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에 대한 국가의 압박은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WWL 2026 조사 기간 동안 당국은 교회의 온라인 활동까지 점점 더 표적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기독교 페이스북 그룹이 2024년 12월 폐쇄된 사건도 포함된다. 당국은 이전에 폐쇄된 교회들을 계속 폐쇄 상태로 유지했으며, 다른 교회들에게도 활동 중단을 명령했다. 그 결과, 알제리 복음주의 개신교회(Evangelical Protestant Church of Algeria, EPA) 산하의 모든 47개 교회가 활동을 중단했으며, 다른 독립 교회들 역시 정부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임을 중단했다. 이런 폐쇄 조치 때문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주변으로부터 훨씬 더 외롭게 고립되어 버렸다. 교회 폐쇄 외에도, 지난 1년 동안 5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기소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계속해서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특히 압박과 위험이 매우 심각한 농촌 지역, 보수적 지역, 그리고 아랍계 지역에서 그러한 상황이 두드러졌다.

# 알제리 (ALGERIA)

##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델마지드 테부 대통령

인구 : 46,922,000명

기독교인 수 : 156,000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56,000	0.3
무슬림	46,006,000	98.1
무신론/불가지론	731,500	1.5
기타	23,600	0.1
	<b>합계</b>	<b>100%</b>

출처<sup>2</sup>

역사적으로 알제리는 아랍계와 베르베르계 혈통의 사람들이 혼합된 민족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의 주류를 이루는 민족은 아랍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베르베르 문화를 주변화해 온 결과, 민족성과 언어는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다. 보수적인 이슬람 환경에도 불구하고, 알제리는 더 넓은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가장 큰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개종자들의 대부분은 카빌리 지역(Kabyle region)의 베르베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카빌리 지역 밖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2006년 3월에 통과된 법령 06-03은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규제하며 비(非)이슬람 예배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 어떠한 새로운 교회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개인

주택이나 사업장 건물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교회 폐쇄 조치는 이제 교회가 지하화되어 비밀리에 모이도록까지 강요하고 있다.

EPA는 1974년에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소속 교회들은 각각 별도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가 어떠한 신청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도 등록에 성공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새로운 NGO 법이 도입되면서 EPA가 다시 인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신청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EPA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알제리는 사실상 강력한 군부와 “르 푸부아르(Le Pouvoir, 권력)”로 알려진 사업가·정치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며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된다.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이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非)이슬람교도들은 고위 정부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019년에는 정치 개혁과 당시 대통령이었던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인 히라크 운동(Hirak movement)이 등장했다. 이 운동은 초기에는 부테플리카의 사임을 이끌어냈으나, 이후 정부는 체포, 시위 제한, 보안 조치 강화 등을 통해 히라크 운동을 탄압했으며, 그 결과 2021년까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sup>1</sup>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sup>2</sup>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북부 카빌리 지역에 거주하며 베르베르계 민족 집단에 속해 있다. 카빌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국가의 아랍계 지역, 특히 남부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매우 적으며 상황도 어렵다.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알제리는 여전히 이슬람의 강한 영향 아래 있으며, 이는 확산되고 있는 살라피주의 운동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가자 전쟁으로 인해 반(反)서방 정서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반(反)기독교 정서가 증가하면서, 알제리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집단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기독교인들과 서구권 해외 거주 기독교인들이 포함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은 대학과 도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 가톨릭교회는 알제리 국내에 네 개의 교구(알제, 오랑, 콘스탄틴 및 이포네, 라구아트-가르다디아)를 두고 있다. 이 교회는 예배 장소 밖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등록된 교회들은 알제 대성당(대주교좌 소재지)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기독교 개종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국가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차별과 압박을 받고 있다. 법은 등록된 교회를 제외한 비(非)이슬람 예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개종자들은 이전까지 사업장 건물이나 개인 주택에서 모임을 가져왔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주의적 억압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알제리 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민들의 이슬람 신념에 도전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슬람 구원전선(Islamic Salvation Front)은 금지되었지만, 평화사회운동(Movement of Society for Peace), 국가건설운동(National Construction Movement), 국가개혁운동(National Reform Movement)과 같은 정당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샤리아에 기반한 가족법 개혁에 반대하고, 이슬람 교육을 추진하며, 알제리의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장려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지역 공동체와 소셜미디어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이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범 위반으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정부 관료들도 이슬람주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통치와 공공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의 이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부는 교회 폐쇄와 전도 혐의 등에 따른 기소를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독립 이후 국가를 지배해 온 집권당은 반(反)식민주의 및 혁명 이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기독교 선교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다. 특히 그러한 활동이 서구의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 씨족적 억압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압박은 이슬람주의적 억압에 기반하고 있다. 아랍계 지역에서는 가족의 명예 또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연장자들이 구성원들의 순응을 강요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연장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 민족·종교적 적대감

대부분의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북부 카빌리 지역에 거주하며 베르베르게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독립 이후 이 지역과 중앙의 아랍계 정부 사이에는 민족 정체성, 문화, 언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민족적 긴장은 종교적 긴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알제리 여성들은 여전히 법과 사회 안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성별 기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 여성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과 살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가족으로부터 폭행, 위협, 또는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 가족들은 또한 기독교 관련 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미혼 여성들은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어 지하교회에 참석하기가 어렵고, 광범위한 교회 폐쇄는 교육과 세례에 대한 접근까지 더욱 차단하여 수천 명을 고립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처벌의 일환으로 강제결혼이나 강제이혼의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기독교 관련 자료·교육·의식 접근 차단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 남성

알제리 기독교 남성들은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지역 사회적·경제적 괴롭힘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족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두

려움과 무력감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경찰과 헌병대의 반복적인 심문이나 구금에 자주 노출되며, 그 결과 가족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목회자들은 결국 국외로 탈출하기도 했다. 남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배척, 폭행, 모스크 참석 강요, 그리고 아버지와 친족들로부터의 절연을 경험하고 있다. 때로는 집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비밀리에 유지한 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20	77
2025	19	77
2024	15	79
2023	19	73
2022	22	71

전체 반올림 점수는 77점으로 유지되었다. 폭력 점수는 6.3점에서 4.8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알제리의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이미 이전 몇 년 동안 폐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폐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력 점수의 감소는 다른 삶의 영역들에서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알제리 교회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교회 폐쇄로 인해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정부는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알제리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계속했다. 기독교 모임은 최소 한 차례 급습을 당했다.
- 정부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여러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폐쇄했다.
-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교회 폐쇄로 인해 수천 명의 알제리 기독교인들이 고립되었으며,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초래했다.
- 지난 3년 동안 최소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계속되는 기소와 재체포에 대한 두려움은 특히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알제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강한 자기검열을 초래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수	정부에 의해 투옥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받은 기독교인 수
2026	15	5	1	15
2025	20	10	5	15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은 엄격한 반(反)전도법 및 신성 모독법에 따라 기소될 위험 때문에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자주 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활동도 포함된다. 법령 06-03은 전도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적대감은 흔하게 나타나며, 가족 구성원들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 모든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가 폐쇄된 이후, 많은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고립 상태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교제와 제자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 가정 영역

정부와 사회는 계속해서 기독교 개종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무슬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 가정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립학교의 의무 종교교육은 엄격하게 이슬람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신념을 위한 여지는 거의 없다. 입양은 무슬림에게만 허용되며, 아버지가 무슬림일 경우 자녀 역시 법적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종종 심각한 가족의 압박에 직면하며, 여기에는 무슬림 배우자나 친족에 의해 시작되거나 강요된 이혼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은 기독교인 부모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다.

## 지역사회 영역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도자들은 전화 도청과 이메일 감시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 승인된 교회 건물 밖에서 기독교인으로 모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카빌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다소 약하다. 보수적인 이슬람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 학생들, 특히 개종자의 자녀들은 교사들로부터의 차별과 대학 진학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개종자들은 취업 지원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종종 자신의 신앙을 감춰야 한다.

## 국가 영역

기독교인들은 당국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개종자들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그러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종종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지만,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가족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과 관계없이 기독교인들은 고위 정부 직책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생활 참여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통제와 관료적 장벽은 기독교인들이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 교회 영역

알제리의 교회들은 심각한 제한에 직면해 있다. 교회는 비(非)기독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조직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성인의 동행이 있을 때만 교회 참석이 허용된다. 법령 06-03에 따라 기독교 자료의 인쇄는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감시 때문에 비자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강제로 폐쇄되었거나 정규 예배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소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분의 신자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지하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받고 있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알제리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3.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4.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알제리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시를 받으며 그들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사찰된다 (ICCPR 제17조)
- 정부는 교회들을 자의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ICCPR 제18조 및 제20조)
-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강간과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ICCPR 제7조)
- 기독교인들은 비(非)기독교인들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 기독교인들은 아동을 입양하거나 위탁부모가 될 수 없다 (ICCPR 제26조)
-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 혐의로 거짓 고발 및 기소를 당하고 있다 (ICCPR 제19조)

## 알제리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알제리의 유대인들, 아마디아 무슬림들, 그리고 시아파 무슬림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압박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아마디아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리 비방” 혐의에 따른 형사 기소, 정부 관계자들의 적대감, 그리고 단체 결성 권리 거부 등을 포함한 더욱 심각한 권리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무신론자들과 수니파 이슬람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역시 알제리에서 적대감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반유대주의 또한 공공 담론 속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오픈도어의 알제리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협력자들과 교회들과 협력하여 북아프리카 교회를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지도력: 지도자 수련회, 지도력 훈련 및 멘토링
- 제자훈련: 대면 방문을 통한 격려, 제자훈련, 신학 훈련 지원, 박해 대비 훈련, 성경 및 기독교 문헌 배포
- 사역: 여성 대상 트라우마 상담 훈련,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실질적 지원, 여성 지원 그룹 조직, 가족 콘퍼런스 및 결혼 전 교육 과정·콘퍼런스 운영
- 생계 지원: 소규모 사업 시작을 위한 소액 대출 제공, 직업훈련 제공, 필요 시 의료 지원 또는 구호 물품 제공
- 알제리 신자들을 위한 기도 지원 확대



###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